

문화재 2015년 12월 말 현재 1천581건이 있으며,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가 1천68건, 시지정문화재가 513건이다. 2014년에 비해 국가지정문화재 10건과 등록문화재 3건, 시지정문화재 10건 등 총 23건이 증가했다.

국가지정문화재로는 송례문, 원각사 10층 석탑 등 국보 157건을 비롯해 흥인지문 등 보물 601건, 사적 68건, 명승 3건, 중요민속문화재 40건, 천연기념물 13건, 중요무형문화재 42건, 등록문화재 144건이 있다. 시 지정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342건, 기념물 38건, 무형문화재 46건, 민속문화재 30건, 문화재자료 57건이 지정돼 있다.

문화시설 2015년 12월 말 박물관 120곳, 공연장 347곳, 미술관 40곳, 공공도서관 197곳 등 총 704개의 문화시설이 있다. 대표적인 문화시설로는 경희궁 터 안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남산골 한옥마을, 북촌 한옥마을, 운현궁 등이 있다.

문화행사 종묘대제(5월), 사직대제(9월), 조선조 과거 재현(10월) 등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가 있으며, 서울드림페스티벌(8월), 국악한마당(10월) 등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시민문화한마당 축제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2015년에 13번째 열린 하이서울 페스티벌은 '길에서 놀자'라는 슬로건으로 주요 광장(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과 도심을 연결하는 거리 곳곳에서 시민참여 프로그램, 나눔 캠페인, 환경 캠페인, 덕수궁 돌담길 예술시장 공동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또한, 서울빛초롱축제(구, 서울등축제)는 11월 6일부터 17일간 '빛으로 보는 서울관광'이라는 주제로 청계천에서 열려 총 25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리에 진행됐다. 이외에도 서울문화의 밤, 서울세계불꽃축제, 서울사진축제 등의 축제가 연중 펼쳐져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자치구별 주요 축제로는 2015 고고(GG) 종로문화페스티벌(종로, 9월), 중구민 어울림한마당(중구, 10월), 충무공 이순신장군 탄생기념문화제(중구, 4월), 한국축의 열 명무전(용산, 10월), 도봉산 서원마을축제(도봉, 10월), 한성백제문화제(송파, 10월) 등이 있다.

관광 관광사업체는 호텔 283개소, 여행업 6천893개소 등 모두 9천7개소로 관광호텔은 특급 64개소, 1~3급 호텔 117개소, 가족호텔 11개소, 호스텔 24개소 등으로 나뉘며 전체 4만 266개의 객실이 있고, 기타 관광사업체로는 도시민박업 706개소, 유원시설업 53개소 등이 운영 중이다.

의회활동

원구성

〈의장〉 박래학

〈부의장〉 김인호, 강감창

〈의석분포〉 더불어민주당 73, 새누리당 29, 무소속 3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13명, 행정자치위원회 11명, 기획경제위원회 11명, 환경수자원위원회 11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1명, 보건복지위원회 11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0명,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3명, 교통위원회 13명, 교육위원회 13명으로 총 10

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의안처리 조례안 356건, 예산 및 결산안 9건, 동의·승인안 75건, 건의안 20건, 규칙안 1건, 결의안 41건, 의견청취 15건, 청원 8건, 기타 50건 등 총 57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총 3천363건을 시정·처리 요구했다.

건의문, 결의문 청년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2015년 9월 18일) 등 총 20건의 건의안과 41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기타 의정활동 2015년 한 해 정례회 2회(제261회, 제264회), 임시회 5회(제258~260회, 제262~263회) 등 총 7회 123일간의 회기를 운영했고, 4회 12일에 걸친 일문일답 형식의 시정 질문에서는 총 65명의 의원이 질의에 나서 시정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부산광역시

市花 : 동백꽃

市鳥 : 갈매기

市木 : 동백나무

캐릭터 : 부비(BUM)

시청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시장 : 서병수(徐秉洙)



개관

연혁 부산은 해운대의 좌동·중동·청사포의 후기 구석기 유적과 영도 동삼동의 조개무지 등 신석기유적의 발견으로 보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신석기문화와 청동기문화는 일본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철기시대에는 철을 생산해 수출했다.

삼한시대 동래지역에는 거칠산국·장산국 등의 부족국가기가 있었다. 이후 동래지역은 신라와 가야의 경계로 해상교통의 요충지였다. 삼국시대에는 신라의 거칠산군이었던가, 경덕왕 때 동래군이 됐다. 이후 대중현을 동평현으로 고쳐 동래군의 영현으로, 갑화량곡현을 기장현으로 고쳐 동래군의 속현으로 삼았다.

고려시대에는 영동도 동래군이었던가 이후 울주군의 속현인 동래현이었다. 고려 말에는 국방상 중요성이 높아져 읍성을 쌓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부산진이 설치됐고, 태종 7년(1407년) 부산포를 개항해, 항거왜인들에게는 왜관 내에서만 무역을 허락했다. 또한, 동래도호부 승격 등 여러 차례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고, 국방정책 강화로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이 설치됐다.

1876년 2월 부산항이 근대 국제 무역항으로 개항됐고, 1895년에는 동래관찰부로 승격됐다. 1900년 초 이후 바다 매축과 시가지 조성, 항만 축조가 이뤄졌고,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됐다.

1914년 4월 부제(府制)가 실시됐고, 1925년 4월 도청이 부산

으로 옮겨오면서 도청소재지가 됐다. 1936년과 1942년에 행정 구역을 확장했다. 1949년 8월 府에서 市로 개칭됐고, 1950년 한국전쟁 때에는 임시수도로서 모든 국가기능을 담당했으며, 1957년 1월 구제(區制, 6개 구)가 실시됐다.

1963년 1월 1일 직할시로 승격됐고, 1975년 10월 남구, 1978년 2월 북구, 1980년 4월 해운대구, 1983년 12월 사하구, 1988년 1월 금정구가 신설되고, 1989년 1월 김해군 가락면·녹산면, 창원군 천가면 등이 편입돼 강서구가 신설됐다.

1995년 1월 광역시로 개칭, 1995년 3월 경남 양산군 동부 5개 읍·면과 진해시 웅동 일부가 편입되고, 연제구·수영구·사상구의 신설과 기장군 편입으로 15개 자치구 1개 자치군 239개 읍·면·동이 됐다. 2015년 12월 말 현재 행정구역은 15개 구, 1개 군, 206개 읍·면·동이 있다.

면적·행정구역 행정구역은 769.97km²(전 국토의 0.8%)이며 도시계획 구역면적은 993.54km²로 이중 주거지역 143.64km², 상업지역 25.21km², 공업지역 63.98km², 녹지지역 547.12km², 미지정 160.88km², 자연환경 보전지역 52.71km²다.

부산광역시 면적·가구·인구

(2015년 12월 31일 현재)

구 분	면 적(km ²)	가 구	인 구(명)
합 계	769.97	1,437,818	3,511,777
중 구	2.83	23,295	45,816
서 구	13.94	53,199	115,963
동 구	9.73	43,430	90,069
영 도 구	14.15	56,446	129,385
부 산 진 구	29.69	165,199	381,572
동 래 구	16.63	106,766	272,837
남 구	26.81	114,120	283,101
북 구	39.36	118,865	310,484
해 운 대 구	51.47	164,386	422,818
사 하 구	41.75	134,692	337,781
금 정 구	65.27	101,130	246,026
강 서 구	181.63	38,727	94,608
연 제 구	12.10	84,543	210,718
수 영 구	10.20	76,325	179,795
사 상 구	36.09	96,671	237,711
기 장 군	218.32	60,024	153,093

재 정

2016년도 예산규모는 14조6천969억원으로 시 10조1천275억원, 자치군·구 4조5천694억원으로 시 본예산 중 일반회계 7조5천914억원(75%), 특별회계 2조5천361억원(25%)이다.

시 예산 중 분야별 세입내역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 3조6천64억원, 세외수입 8천574억원, 지방교부세 8천240억원, 보조금 2조8천298억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조99억원이며, 분야별 세출내역은 일반공공행정·질서·안전 1조6천940억원, 교육재정지원 6천232억원, 문화·관광 3천313억원, 환경

보호 6천477억원, 사회복지·보건 3조4천762억원, 농림해양수산 1천390억원, 산업·중소기업 3천351억원, 수송 및 교통 1조7천73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4천211억원, 예비비 및 기타 6천860억원이다.

2016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항 목	예 산 액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 계	10,127,527	7,591,397	2,536,130
지방세	3,606,403	3,606,403	-
보통세	3,106,006	3,106,006	-
취득세	1,116,894	1,116,894	-
등록면허세	5,616	5,616	-
주민세	21,924	21,924	-
자동차세	507,045	507,045	-
레저세	106,923	106,923	-
담배소비세	205,529	205,529	-
지방소비세	491,618	491,618	-
지방소득세	650,457	650,457	-
목적세	481,745	481,745	-
지역자원시설세	120,335	120,335	-
지방교육세	361,410	361,410	-
2015년도 수입	18,652	18,652	-
세외수입	857,404	154,604	702,800
경상적 세외수입	697,604	74,892	622,712
임시적 세외수입	159,800	79,712	80,088
지방교부세	824,000	824,000	-
지방교부세	824,000	824,000	-
보조금	2,829,795	2,146,868	682,927
국고보조금 등	2,829,795	2,146,868	682,927
지방채 및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009,925	859,522	1,150,403

2016년도 부산광역시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	예 산 액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 계	10,127,527	7,591,397	2,536,130
일반공공행정	1,218,977	1,097,707	121,270
공공질서 및 안전	475,071	364,293	110,778
교육	623,184	623,184	-
문화 및 관광	331,344	302,167	29,177
환경보호	647,669	86,390	561,279
사회복지·보건	3,476,239	2,829,428	646,811
농림해양수산	138,960	138,960	-
산업·중소기업	335,077	304,086	30,991
수송 및 교통	1,773,917	1,069,076	704,841
국토 및 지역개발	421,123	357,948	63,175
예비비	70,328	70,328	-
기타	615,638	347,830	267,808

중점추진사업

좋은 일자리 20만개 창출 좋은 일자리 20만 개 창출 분야로는, 우선 R&D 투자를 통한 연구직 일자리 4천 개 창출, 기존 제조업, 예를 들어 해양플랜트, ICT융복합산업, 의생명과학, 에너지, 수산식품·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일자리 5만5천 개 창출, 기업창업 및 기업유치로 인한 일자리 1만7천 개 창출, 금융, 관광·마이스 산업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3만8천 개 창출, 중장년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 복지, 여성 및 서민복지형 일자리 3만9천 개, 취업지원센터 및 취업박람회 등을 통한 일자리 4만7천 개 창출 등이다.

센텀기술창업타운(CENTAP) 조성 지역의 유망한 창업기업들이 중앙의 우수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기 위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글로벌기업 육성을 위해 센텀기술창업타운(CENTAP)을 2016년 2월에 조성할 계획이다.

센텀기술창업타운(CENTAP)은 지역의 유망한 기업이 TIPS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부산형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제조업과 IT를 융합하는 기술창업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부산 글로벌시티 낙후된 서부산권(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을 2030년 글로벌 30대 도시진입, 소득 5만 달러 달성이란 비전을 두고 있다. World 16개 사업, Wide 11개 사업, West 16개 사업 등 총 43개 사업, 62개 단위사업을 2016년부터 203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며, 총 사업비는 52조8천76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조성사업 본격추진 위치는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원으로서 규모는 1천188만6천㎡이다. 2015년 12월에 발주한 2단계(강동동) 공사는 2016년 5월에 공사착공 예정이며, 2017년에 마지막 3단계(대저2동) 공사를 착공해 2022년에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부산다운 문화로 글로벌 도시브랜드 가치상향 디자인, 마케팅, 관광, 커뮤니케이션 등 각 분야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 도시브랜드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브랜드 정책에 관한 싱크탱크로 운영하고 있다. 2016년도에는 유라시아 교통관문 브랜드, 브랜드 공모전 응모, 부산형 우수정책 해외진출, C·도시브랜드 슬로건 재구축 검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쟁력 있는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1단계 독일 캠퍼스 건립을 위해 명지 국제신도시 내 글로벌 캠퍼스타운 부지(54,180㎡)에 국·시비 예산 30억원을 확보,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 글로벌 외국기업은 현재까지 1개사와는 입주계약, 10개사와는 MOU·LOI를 체결했다. 외국인투자신고액 기준 3억2천7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다.

부산시는 2018년까지 1천800억원을 목표로 투자진흥기금을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2015년 말 876억 원을 조성했다. 또한 유망 IT기업 '지식서비스산업'분야의 수도권 강소기업 유치를 위해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지원제도를 신설(15. 11월)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강소기업 유입과 고부가 서비스 기업유치를 가속화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더욱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부산의 섬유패션산업 종사자 약 2만3천 명의 전국 4위 섬유 도시로 부산 제조업의 13%를 차지하고 연간 생산액은 2조2천억원, 부가가치 9천137억원으로 2016년 2월 창립되는 '부산섬유패션정책포럼'을 통해 부산 섬유패션산업의 뉴 패러다임을 제시했고, 섬유산업 기반구축을 위해, 부산패션의류산업의 원스톱 지원 기능을 수행할 '부산패션비즈니스센터'구축사업은 2016년 국비 10억 원을 확보해 실시설계를 착수했고, 해양 도시에 걸맞은 해양융복합소재 산업경쟁력 제고 및 해양레포츠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해양융복합소재센터 및 레포츠 기반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부산연구개발특구 육성 2016년에는 110억원 국비 외에도 시비 4억 원을 확보해 해양플랜트기자재R&D센터 등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시설과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을 위한 전문 지원시설인 글로벌테크비즈니스센터 건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복합지구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등 국내외 우수기업, 연구기관이 부산특구로 이전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의료용 중입자(重粒子)가속기 총사업비 1천950억원으로 국비 700억원, 시·군비 500억원, 의학원 750억원이 투자된다. 2013년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공학설계와 2014~17년 가속기 및 치료시스템 제작·설치 2018~19년 인허가 및 임상시험 등을 거치고 2020년에는 국내외 난치성 암 환자를 대상으로 본격 치료에 나설 계획이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사업 2018년까지 사업비 2천900억원을 투입해 20메가와트급 연구로 1기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 50년간 운영기간 중 전 산업에 걸쳐 38조 1천 83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5조7천629억원의 부가가치 증대 유발효과가 예상된다.

동남권 신공항 현재, 정부는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이 끝나는 2016년 6월경 최적대안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김해공항의 안전·소음문제를 해결하고 항공수요 급증에 따른 공항시설 포화를 해소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안전하게 24시간 운영 공항', 그리고 '김해공항 존치를 주장하고 있으며, 신공항은 활주로 1본 건설을 계획해 경제성과 실현성을 확보했다.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 건설 동해남부선 부산-울산구간에는 현재 22개역이 계획되어 있으며 부산지역에는 16개역이 건설될 예정으로, 부전역에서 일광역까지 2016년 부분 개통하게 되면 도시철도가 없는 동래-안락-해운대-반여·재송지역을 서면도심과 20분대에 연결하게 된다. 또한 부산시는 안락-반여동지역에 원동역을 추가로 신설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과 수차례 협의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으며, 부산시 예산을 투입해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동부산관광단지, 해운대, 센텀시티를 잇는 관광벨트 활성화가 기대된다.

부산 그린레일웨이 조성사업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연장 9.8km) 활용을 위해 사업비 316억원(국비 100억원, 시비 216억원)의 국고보조사업으로 2014년 착수, 2018년 준공 목표로 사업 중이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2016년에는 4차연도 사업인 좌천·수정구역사업의 마무리와 5차연도 중무구역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또한 가야·개금구역에 10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반 및 공동체시설, 산복도로 상징사업, 주민 제안형 사업, 공동·지원사업 등 6개 분야 29개 단위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게 된다.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기장군 인근 부지 363만여㎡에 사업비 4조원 이상을 투입해 테마파크, 운동·휴양 체류시설, 테마상가 등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9년부터 전체 단지를 4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개발과 선도사업 우선 개발 등 전략을 변경 추진하고 2010년 착공한 부지조성공사가 진척되어 2012년부터 개발이 가시화되면서(2015년 부지조성 완료) 주요 시설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까지 세계적인 수준의 콘라드 힐튼호텔, 아쿠아리움, 국내 최대 프리미엄 아울렛, 브랜드호텔 등 34개 대상시설 중 21개 시설(60%)의 투자유치가 완료됐고 다른 시설에 대한 투자관심 또한 고조되고 있다. 2015년 나머지 13개 시설(40%)에 대해 개별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2016년까지는 대부분 투자유치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단지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진입도로도 2014년 말에 완공했고 승용차 관광객이 가장 많이 이용할 부울고속도로 연결도로는 2016년 상반기 개통예정으로서 2016년 말까지 교통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할 예정이다.

부산항 신항건설 신항은 2020년까지 '컨'부두 40선석(16조 6천823억원) 건설계획 중이며, 현재 운영 중인 21선석(북'컨'13, 남'컨'8)과 2012년 8월 착공 건설 중인 서'컨'(2선석, '18년 완공)과 2015년 12월 착공한 남'컨'(3선석, 2020년 완공)건설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1만 2천TEU급 선박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2017년까지 17m를 중심 준설하고 항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6년 착공해 2019년까지 토도제거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2013년 2천930억원, 2014년 3천718억원, 2015년 4천780억원, 2016년 5천230억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12개 공구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2017년 12월 준공을 위해 2015년 12월 현재 54% 공정으로 추진 중이며, 본 도로가 준공되면 남해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부울고속도로와 연계성 강화와 도심으로 유입되는 교통량을 시외곽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부산도심 내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부울경 광역 경제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마터널 건설 거가대교에서 가덕대교-신호대교-을숙도대교-남항대교-부산항대교-광안대로로 이어지는 총길이 52km의 해상도로 상에 내륙을 통과하는 사하구 구평동에서 서구 암남동(남항대교)을 연결하는 총연장 3천280m의 도로로 터널은 1천500m이다. 본 도로는 수익형 민자사업방식(BTO)으로 건설되며 총사업비는 3천65억원으로 민자투자비 1천799억원과 재정지원 1천266억원으로 건설된다. 공사는 2018년 12월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정은 2016년 1월 기준으로 55%이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사업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임대형 민자사업 지정을 시작으로 2015년 3월 착공해, 2017년 3

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시설 개관은 사전준비를 거쳐 2017년 상반기 개관예정이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은 국내 최고의 영화박물관 기능과 영상체험시설 구성을 위해 전시시설의 재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시설로는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장 및 체험시설, 영상홀, 하이테크체험관 등을 갖추게 된다.

부산표도서관 건립 총사업비 500억원으로(국비 200억원, 시비 300억원), 부지면적 1만381㎡로 연면적은 총 1천6천㎡(±10%)이다. 주요 시설은 자료실, 보존서고, 회의실(교육), 다목적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16년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거쳐 국비를 확보하고 설계디자인 공모 등을 거쳐 2016년 착공, 2018년 도서관을 개관할 계획이다.

경제

경제지표 부동산 업황이 호조세를 띠는 가운데,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전체 취업자 수는 감소했지만, 제조업 생산과 관련 취업자 수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출은 지속적인 엔저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품목별로 자동차부품과 자동차 부문이 낮은 북미 수출형 모델인 로그 위탁생산의 영향으로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고, 이에 따른 국가별 수출비중도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對중국 수출의 경우, 위안화 평가절하와 더불어 경기 둔화에 따른 중국 제조업 업황이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부산의 최대 수출품 중 하나인 철강부문을 중심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한편, 수입도 내수경기 회복세 부진 및 철강제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에 따라 수출용 원자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수출금액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치인 12억5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제조업 생산은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 증가로 인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생산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벌크선, 컨테이너선 등 수주 선박의 건조가 이루어지면서 선박관련 생산도 증가세를 보였다.

고용 지역 내 주력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2014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부산 산업구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부문이 메르스로 인한 내수침체로 취업자 수 감소세를 주도했다. 고용률도 2014년 대비 0.5%p 소폭 하락한 55.9%를 기록했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부동산 경기 활황에 따른 집세와 개인 및 공공 서비스 부문은 상승했지만,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부문의 물가가 하락해 2014년 대비 0.5%p 감소한 0.8% 상승률을 기록했다.

제조업 2014년 말 부산지역의 제조업체(종업원 10인 이상)는 조립금속·기계, 섬유·의복, 신발·피혁, 석유화학제품, 목재·가구, 전기·전자, 자동차·운송장비, 음식료품, 종이·인쇄, 1차금속 등 4천185개 업체가 있으며, 연간 종업원 수는 14만1천460명, 출하금액은 41조2천151억원, 부가가치는 14조1천569억원이다.

업종별로는 조립금속·기계분야가 전체 업체 수의 42.1%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통 산업인 신발·섬유가 전체업체 수의 17.3%를 차지, 자동차·운송장비 업체 수는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종업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체(종업원 10인 이상)는 4천160개로 전체 제조업체의 99.4%를 차지했다.

금융 2014년 말, 부산지역 금융기관의 점포 수는 예금은행 617개(시중은행 255, 지방은행 241, 외국은행 3, 특수은행 118)와 비은행기관 1천828개소 등 총 2천445개소이며, 금융기관의 여·수신 규모는 2015년 11월 말 현재 수신 잔액 113조6천566억 원, 여신 잔액 114조3천564억 원이다.

농업 농경지는 금정구와 북구, 해운대구 변두리 일부, 강서구와 기장군 전역에 펼쳐져 있으며 면적은 6천351ha, 농가 호 수는 7천70호, 농가 인구는 1만9천935명이다.

축산업 축산 농가 수는 2016년 1월 현재 373가구로 소 2천602두(150가구), 돼지 8천413두(27가구), 닭·오리 7만8천285수(196가구)를 사육하고 있다.

항만·수산업 부산항의 2015년도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량은 수입 465만TEU, 수출 470만TEU, 환적 1천8만TEU 등 총 1천943만TEU로, 2014년 대비 4.0% 증가했다(전국 75%). 부산시의 어항 시설은 국가 어항 3, 지방 어항 13, 어촌 정주어항 5개, 소규모 어항(비법정어항) 27개 등 총 48개소이고, 2015년도 연근해 생산량은 34만(전국의 13%)이며, 2014년 말 현재 수산물가공 등록업체 수는 125개소, 냉장보관능력은 138만M/T이다.

사회

주택 2014년 말 현재 주택보급 현황은 유형별로 보면 단독 48만3천765호, 아파트 70만6천428호, 다세대 13만9천812호, 연립 3만9천513호 등 총 136만9천518호로 주택보급률은 105.9%이다.

상수도 생산능력은 1일 214만4천m³이며 2015년 말 현재 1일 평균 생산량은 108만7천m³, 1인 1일 급수량은 305ℓ, 상수도 보급률은 100%이다. 현재 청정원수 확보 차원의 일환으로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개발사업과 기장군 일원에 일 4만5천 규모의 해수담수화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배수지를 통한 24시간 상시 안정적인 급수체계 구축을 위해 2018년까지 시 전역 74개소, 54만6천의 저수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하수도 2015년 말 현재 하수도 보급률 99.2%, 하수관거 보급률 83.5%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수영, 강변, 해운대, 남부, 녹산·신호, 서부, 중앙, 영도, 동부, 기장, 정관, 문오성하수처리시설이 가동 중에 있고, 2030년까지 하수도 보급률을 99.9%까지 높일 계획이다. 현재까지 총 하수관로 시설연장은 8천277km, 오수관로 연장은 1천670km, 기존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정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보건·위생 종합병원 28개소, 병·의원 2천516개소, 치과 병·의원 1천224개소, 한방 병·의원 1천110개소, 부속의원 10개소, 조산원 3개소 등 4천891개 의료업소에 의사 등 의료인 2만4천788명, 의료기사·간호조무사 등 의료인력 2만4천459명, 약업소 6천467개소이다. 위생업소는 공중위생업 9개 업종 1만6천

637개소, 식품위생업소 24개 업종 7만8천561개소를 관리한다.

국제교류 부산시는 자매·우호협정도시 및 기타 도시들과의 국제교류협력 등을 위해 300회 이상 해외방문을 했으며 특히 2번의 유럽순방을 통해 해외 주요 기업 및 금융기관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사업으로 말레이시아 페낭주와 교류협정을 체결했고 유럽 주요 도시와의 교류 강화를 위해 독일 함부르크시와도 우호증진협정을 체결했다. 2015년 5월 '호치민데이' 행사를 운영했고 2015년 7월에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부산데이'를 개최해 다양한 문화공연 및 의료·문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교류의 내용면을 보면 자매결연 기념행사, 문화공연단 상호 파견, 상호 축제 참가, 초청 교류, 초청 연수, 한인의 날·한글학교 지원 등 우호친선 교류뿐만 아니라 문화·의료봉사단 파견, 전문가 중심의 포럼 확대 등 민간중심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교류를 펼치고 있다.

교육·문화

교육 유치원 402, 초등학교 306, 중학교 172, 고등학교(특수·기술학교포함) 167, 대학(전문대 포함) 22, 평생교육시설학교 7개소 등 총 1천76개교에 학생은 68만5천여 명이다.

종교 사찰 및 교회 등 종교시설은 불교 2천여 개소, 기독교 1천800여 개소, 천주교 106개소, 원불교 53개소, 천도교 9개소, 유교 2개소, 기타 135개소 등 전체 3천800여 개소이며, 성직자는 약 7천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화재 부산박물관에 보관 중인 금동보살입상 등 국보 6점, 부산 범어사 삼층석탑 등 보물 37점, 부산 동래 패총 등 사적 4점, 부산 양정동 배롱나무 등 천연기념물 7점, 부산 영도 태종대 등 명승 2점, 동래야류 등 중요무형문화재 6점 등 국가지정 문화재 64점과 부산 임시수도정부청사 등 등록문화재 18점,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257점(유형문화재 160점, 무형문화재 23점, 기념물 53점, 민속문화재 16점), 문화재자료 92점 등 총 426점이다.

문화시설 시내 공연장은 85개소로 공공 공연장이 31개소, 민간 공연장이 54개소이며, 전시시설은 미술관 6개소, 박물관 18개소, 문화원 20개소 등이 있으며, 31개소의 영화상영스크린 209개)이 있다. 한편 문학,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미술, 건축, 사진 등의 문화 예술인은 7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문화행사 해맞이축제(1월), 북극곰 수영대회(1월), 제96회 전국동계체육대회(2월), 부산 국제 보트쇼(3월), 부산연극제(4월), 해피랑길 걷기 축제(4월), 부산국제단편영화제(4월), 부산시민자전거대회(4월), 조선통신사 부산축제(5월), 부산국제연극제(5월), 부산콘텐츠타켓(5월), 크푸즈 박람회(5월), 대한민국 한복페스티벌(5월), 아트부산 2016(5월), 부산청소년예술제(5월), 부산청소년민속예술제(5월), 부산민속예술축제(5월), 부산오픈챌린저투어테니스대회(5월), 부산국제장대놀이뛰기경기대회(5월), 부산국제무용제(5월),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5월), 부산 수퍼컵 국제요트대회(5월), 부산 J스포츠 축제(5~8월), 부

산동래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6월), 투르 드 코리아 2015 부산대회(6월), 부산오픈 국제휠체어 테니스대회(6월), 부산광역시장배 국제서핑대회(6월), 부산무용제(7월), 부산음악공쿠르(7월),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7월), 부산미술대전(7월), 부산마린스포츠포츠(7~8월), 바다축제(8월), 현인가요제(8월), 부산락 페스티벌(8월), 부송도전국해양스포츠대회(8월), 부산국제매직 페스티벌(8월), 부산국제광고제(8월), 부산국제코미디 페스티벌(8월), 부산마루국제음악제(8월), 코리아오픈 부산국제드래곤보트대회(8월 말~9월 초), 부산국제관광전(9월), 부산비엔날레(9월),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9월), 부산 MICE 페스티벌(9월), 부산관광그랜드세일(9월), 부산무형문화재 한마당 축제(9월), 제17회 부산광역시장기 장애인생활체육대회(9월), 부산광역시장배 드래곤보트대회(9월), 부산 One-Asia페스티벌(10월), 유엔의 날 기념행사(10월), 부산국제영화제(10월), 부산국제필름커미션·영화산업박람회(10월), 아시안 영상정책포럼(10월), 부산자갈치축제(10월),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10월), 부산예술제(10월), 부산국제합창제(10월), 부산불꽃축제(10월), 제26회 부산생활체육축전(10월),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10월), 제96회 전국체육대회(10월),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 위크(10월), 부산 컵 세계여자매치레이스 요트대회(10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11월), 부산미술제(11월), 부산독립영화제(11월), 부산콘텐츠투니버시아드(11월), 2028 하계올림픽 부산·울산 유치 학술세미나(12월), 보드게임 페스티벌(12월), 트리문화 축제(12월), 시민의 종 타종식(12월) 등이다.

영화영상진흥 롯데그룹과 부산의 영화영상분야 창조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조성된 '부산-롯데 창조영화펀드'는 총 210억원 규모로 2016년 3월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부산 지역 제작사에게 장편 상업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노하우와 경험을 쌓게 해 장기적으로 부산에서 장편 상업영화 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산 영화제작 생태계조성을 위한 펀드이다.

중국 완다그룹과 1천억원 규모의 펀드조성을 합의했고, 현재 추진 중인 글로벌 종합촬영소가 건립되는 가까운 미래에는 부산발 영화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누비게 될 것이다.

2015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아시아영화학교는 부산에서의 아시아 영화전문인력양성교육을 더욱 체계화하고 활성화시킬 것이며,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게임 아카데미나 입체영상아카데미를 통해 IT·CT산업 등 첨단 영상 콘텐츠분야 교육도 실시해 영화 산업과 첨단 콘텐츠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다.

새 정부 창조경제 활성화의 주요 국정과제인 콘텐츠코리아랩(2014년 12월)과 모바일 게임센터(2015년 9월)를 개소해 창조경제중심도시 부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세계 5대 영화제로 도약하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는 3년 연속 관객 20만 명 시대를 열었고, 아시아필름마켓·아시아영화펀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부산이 아시아 영화의 메카, 영상산업 허브 부산을 실현했다.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는 2013~16년(4년) 부산유치로 영구 개최 기반을 조성, 세계 3대 게임쇼로 성장을 목표로 해외기업의 참여와 게임산업의 저변확대는 물론 수출 증대를 통한 게임 메카도시 및 글로벌 TOP 전시회로 도약했다.

의회활동

원구성

〈의 장〉 이해동

〈부의장〉 권철우, 손상용

〈의 원〉 의원정수는 47명이며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45명, 더불어민주당 2명이다.

상임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8명, 경제문화위원회 8명, 복지환경위원회 8명, 해양교통위원회 7명, 도시안전위원회 8명, 교육위원회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로 운영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7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례회 및 임시회 2015년도 시의회 정례회는 2회 57일간, 임시회는 6회 73일 등 총 8회 130일간의 회기를 가졌다.

의안처리 2015년도에는 조례(안) 208건, 예산·결산(안) 9건, 동의·승인(안) 34건, 결의(안) 5건, 의견청취(안) 11건, 기타(안) 43건 등 총 310건을 처리했다.

예산심의 2015년도 예산심의는 본예산 1회, 추경 2회에 걸쳐 총 3차례 심의를 했으며, 2015년도 부산광역시 본예산 10조 1천275억원,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3조4천577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총 50개 기관·단체를 감사해 그중 352건을 시정요구, 334건을 건의하는 등 총 686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건의문, 결의문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구성변경 결의(2015년 1월 28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전자가드 시행에 대한 정책변화 촉구 결의(2015년 3월 20일), 고리1호기 폐로 촉구 결의(2015년 4월 24일), 가락요금소 폐지 촉구 결의(2015년 7월 23일), 원전주변지역의 국가전략특구 지정 결의(2015년 7월 23일) 등 5건의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기타 의정활동 2015년 한 해 동안 의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3회에 걸쳐 32명 의원들이 1천39건의 질문을 실시해 119건의 검토·이행 약속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학교 급식 이대로 좋은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물 관리대책 마련 촉구' 및 '불거리, 길질거리로 넘쳐나는 관광도시 부산을 만들자!' 등 15회에 걸쳐 114건 실시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현안 등 관심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화합의회, 행동의회, 열린의회'를 목표로 의회 홈페이지의 모바일 서비스 및 회의실황 인터넷 생중계, 홍보동영상, 의정뉴스를 비롯한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문서, 사진 등의 멀티미디어 정보 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시민들에게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알리기 위해 초·중·고 의회교실 9회(504명), 여성의회교실 2회(147명), 시민의회교실 1회(62명),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7개 팀 101명)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계층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